

사도행전에 숨겨진 성경적 전도시스템

-복음으로 여는 사도행전-

다니엘 12:3, 사도행전 16:13-18

정운돈 목사님

* 단12:3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 행16:13-18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게든 내 집에 들어와 유히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나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태초에 우주와 천하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해주셔서, 인간이 예배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가장 가치있게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어리석고 부족하고 연약하여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다가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 전 인류가 오만가지 고통을 당하며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다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여 땅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자격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의 제자가 될 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과 예배를 통해 힘을 얻고 치유를 받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해, 교회와 후대를 위해 생명 걸고 올인할 이유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하옵소서. 성도와 램프들이 혹시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과 시험에 빠진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말씀을 통해 응답과 해답을 얻으며 나와 교회와 나라와 민족에 주시는 도전해야 할 구체적인 미션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옵소서. 그리스도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구원을 얻게 한 전도자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행복과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사실 이 세상 아무 것도 아니고 별 것 없다. 행복하고 재밌는 것도 없고 의미도 없다. 성공하고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늙고 어디 아프다. 가장 가치 있고 행복한 방법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사람들에게 문제와 갈등이 있는데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내 영혼 속에 깊이 각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십자가와 부활이 51구절 안에 다 녹아져 있다. 우리는 죄인이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희망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인 주님이 우리를 위해 뺨을 맞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다. 여러분은 전도하다가 채찍이나 침뱀을 당하신 적 있다. 문제 왔을 때 복음이 체질되어야 한다. 하루를 넘기지 말라고 하셨다. 나중에는 순간적으로 말씀이 체질되어야 한다. 하나님 말씀이 각인, 뿌리, 체질 되면 문제 왔을 때 복음으로 바로 재해석이 된다. 그렇게 되었을 때 전도자로서 전도할 수 있다. 무엇으로 행복하나. 먹으면 살찌고 돈을 많이 벌어도 행복하지 않다. 제자를 찾고 복음을 전하고 예배하는 게 행복하다. 세상 쾌락의 마약중독자들이 마약을 끊게 하는 게 복음이다. 그게 예배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마약중독자들도 체험하는데 여러분이 체험 못 하면 안 된다. 만일 우리들이 오직 전도와 선교에 올인한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지금 이 땅에서도 앞당겨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한 명이라도 전도해서 교회로 인도한 적이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 문제, 돈 걱정이 중요한 게 아니다.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는 30년 동안 돈 벌어 오신 적이 없다. 늘 빚으로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도왔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한 번도 영적으로 우울해 하고 신경쓰고 불평하지 않았다. 만나면 사람들에게 간증하시고 증거했다. 나중에는 굶지 않고 돌아가셨다. 거기에 여러분의 영혼을 담아서 안 된다. 내가 정말 전도하고 있는지, 다락방을 하고 있는지, 내가 제자 삼고 있는지에 여러분의 모든 초점을 맞춰야 한다. 여러분은 세상 사람과 다르다. 그리스

도의 제자들은 한 명을 영접하고 한 명을 다락방하고 한 명을 교회화시키는 전도사역에 올인해야 한다. 공부도 하고 일도 하지만 그것만 하면 여러분은 행복할 수 없다. 그걸 하는 이유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다. 세계복음화를 준비하기 위해서다. 전도가 우리의 본업이다. 절대언약과 목표가 있을 때 흔들리지 않는다. 여러분의 목표가 뭐냐. 세상은 의미가 없다. 그러나 이 땅에서 복음과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살아간다면 굉장히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이다. 여러분 안에 다윗의 마음이 있는지, 성전과 나라와 민족을 위하고 제자 삼는 일에 내 영혼이 담겨있는지가 중요하다. 전도 안 될 수가 없다. 이것이 모든 응답과 축복을 받는 비밀이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보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고 약속해 주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의 증인이 되시기를 바란다. 저는 27살까지 외국에 가지 않았다. 주일학교 교사였기 때문이다. 내게 주어진 주일학교 일을 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 이후로 하나님은 저를 전 세계 40개국을 보내셨다. 먼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야 한다. 저는 5년 이상 토요일, 일요일 날 어디를 가본 적이 없다. 자원봉사자들이 주말에 오기 때문이다. 그때 제게 주어진 그 일을 했다. 지금은 매주 해외에 나간다. 지금은 여러 군데에서 구원의 길을 강의해 달라는 요청이 온다. 이번에 네팔에서도 몇 천명의 제자들, 파키스탄에서 몇 만 명의 제자들이 일어났다. 대단한 신학이 아니다. 구원의 길이 나의 것 되어서 매일 그리고 증인되면 된다. 여러분들도 암송하고 매일 현장에서 구원의 길 전달하는 마음으로 준비해라. 그런 마음으로 전도하고 50명 영접하고, 100명 영접해라. 그러면 여러분이 증거할 게 많아진다. 이게 될 때 사도행전의 언약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

오늘은 사도행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발견하고자 한다. 사도행전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성경적인 전도운동과 세계복음화의 방법들이 모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전 세계 제가 40개국 가까이 가봤는데, 우리 교단처럼 전도, 선교 잘하는 단체가 없다. 제자를 키우면서 메시지가 있는 교단이 없다. 대부분 선교현장에서 공부하고 한국에서 목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아니면 잘하는 분들을 보면 신비주의를 하고 있다. 제 동기도 해외에서 선교한다는 게 영어 캠프다. 제게 와서 복음 전해달라고 한다. 사도행전의 역사가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 우리는 부르는 데가 많아서 시간이 없다. 사도행전의 비밀을 발견할 때 전도와 선교의 문은 계속해서 열리게 될 것이다. 전도캠프의 현장에서 루디아 한 사람을 찾았는데 빌립보지역이 복음화되었다. 귀신들린 여종과 간수, 복음으로 우리가 준비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제자들과의 만남을 주신다.

1. 사도행전 28장 전체의 흐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전반부인 1장부터 12장까지의 중심인물은 베드로이고, 13장부터 마지막 장인 28장까지에서는 사도 바울의 전도여정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다.

사도행전 1장은 그리스도의 승천과 마가다락방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 1장 1절은 그리스도, 1장 3절은 하나님의 나라, 1장 8절은 성령충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 1장 1절에 ‘내가 먼저 쓴 글에는’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을 의미한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테오빌로에게 누가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우리들은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하여 자세히 그리고 정확히 알아야 한다. 이것이 신앙생활을 승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소식과 구원의 길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한 선교사님이 구원의 길을 3천 번 그리고 쓰니까 내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셨다. 전도하고 영접하고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에서 복음을 적용하려면 구원의 길을 3천 번 해야 한다. 그러면 증인되고 참된 전도자가 되고 세계복음화의 문이 열리게 된다. 1장 3절은 하나님의 나라이다.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다. 우리는 부활절 전에 사순절이라고 하는데, 부활절 전의 사순절은 성경적인 근거가 없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건 부활절 후 40일이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들은 부활절 후 40일 간을 전도캠프의 기간으로 정해야 하겠다. 그리고 부활 후 50일 뒤에 성령이 임하시고 최초의 교회가 탄생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절대미션은 세상 나라, 사탄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은혜와 땅과 희생과 용서와 사랑이 십자가 안에 다 있다. 주님이 용서했기 때문에 나도 용서해야하고 예수님이 억울한 일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억울하다고 할 필요가 없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지만 아무 말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오히려 감사해야 한다. 우리는 더 큰 죄를 지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절대대대로 주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 사람이 이 사실을 증거하고 이 빛을 발할 때 그 현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라. 예수님은

더 역올하고 더 큰 일을 당하셨고 침벨을 당하시고 뺨을 맞으셨다. 그 주님이 영접한 우리에게 아버지 되신다. 그게 언약의 길이다. 그 말씀을 증거하는 게 흑암을 꺾고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는 것이다. 1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땀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해 주셨다. 성령충만, 성령인도를 받는 것이 전도와 선교의 모든 것이다. 여러분이 이 결론을 내면 하나님이 성령을 충만하게 주시고 땀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하신다. 노력하고 가라는 게 아니다. 되리라 하셨다. 1장 14절에 보면 최초로 마가다락방에 모인 분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분들은 오직 예수와 오직 복음을 위해 올인한 사 람들이었다.

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오순절 날에 그들이 모여 있을 때 성령이 충만 하게 임하셨다. 성령께서 임하신 결과 그들은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였고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때 하나님께서는 15개국의 사람들과 의 만남을 준비해 두셨다. 우리처럼 사실적으로 다문화, 다민족 선교하는 곳이 없다. 사실적으로 제자가 일어나고 선교한다. 우리 교단 선교사님은 정말 소중하다. 그 분들을 초청하고 오시면 헌금하시고 현장에서 그들을 돕고 램넛트들에게 선교의 문을 열어주는 일에 올인해야 한다. 15개국이 아니라 70개국과 150개국으로 가야 한다. 그걸 위해 여러분의 현장에서 충실하시다가 문 열릴 때 가셔라. 그전까지는 주업에 충실해라. 2장 14 절에서 36절에는 베드로가 설교하는 장면이 나온다.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성령충만을 받은 베드로는 불과 50일 전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가 아니었다. 2장 37절에서 41절을 보면 이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돌아 온 사람들이 3천 명이나 되었다. 2장 37절에서 41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찢려 회개하여 세례를 받아 성령의 선물을 받았고, 그 날에 신도의 수가 삼천이나 더했다고 했다. 이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날 줄 믿는다.

3장은 성전 때문에 앉았던 앉은뱅이를 고쳐주면서 말씀을 전하는 베드로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다. 3장 6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는 구걸하고 있는 이 앉은뱅이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셨다.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은혜가 있다면 은과 금이 아닌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 된다. 복음만이 사람을 살릴 수 있다. 어제도 류목사님이 복음 예배 성령으로 충만하면 나머지 경계가 따라온다고 하셨다. 왜 여러분들은 현장에 끌려다니 나. 전도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교회화 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흑암이 꺾 이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전도자다. 무엇에 중심을 가져야할 지 안다. 그래야 진짜다.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면 뭐하나. 우리는 한 생명을 구하는 게 천하보다 소중한 전도자다. 그 속에서 행복해야하고 응답을 받아야 한다. 그 안에 다 있다. 그 안에 다 있다는 증인이 되시기 바란다. 그게 진짜 크리스천이다.

4장은 복음을 전하다 체포된 베드로와 그 후 교회가 핍박을 받는 상황에 대한 5장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사건을 통하여 교회가 받은 시험에 대한 내용이다. 성령충만하고 은혜받는데 그 뒤에 오히려 시험거리가 더 크게 온다. 그러나 문제 아니다. 문제 뒤에는 더 큰 축복이 있다. 하나님께 질문하고 구해보라. 저는 천 번, 만 번 기도한다. 어떤 분은 자기 마음에 드는 말씀을 붙잡고 말씀성취됐다고 하는데 아니다. 이게 정말 나의 기준 이 아닌지, 하나님의 계획인지 붙잡고 질문해라.

6장과 7장을 보면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교회를 살릴 일곱 명의 중 직자를 세웠다. 이 중에서 스테반 집사는 순교까지 하였고 8장에서 빌립 집사는 에디오피아 내시를 통하여 선교의 문을 열었다. 이러한 중직자 장 로들이 일어나야 한다. 중직자가 선교를 먼저 했다. 중직자가 동기 없이 헌 신하는 게 얼마나 큰 응답인가. 이렇게 오직 예수로 결론 난 마가다락방의 제자들과 중직자들이 준비되었을 때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시대적인 전 도자 바울을 회심하게 하셨다. 주님께서서는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해 군대 를 대동하여 가고 있는 바울에게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 나타나셔서 바울을 회개시켜주셨다. 여러분이 복음과 전도로 결론 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 해 전도자와의 만남을 주신다. 10장은 로마 백부장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 남에 대해서, 11장은 안디옥교회에 대하여 말한다. 안디옥교회는 개척교회 인데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다. 12장은 감옥에서 기적적으로 풀려난 베드로에 대해서, 13장에서 20장까지는 사도 바울팀의 1, 2, 3차 선교여행 에 대하여, 20장부터 28장까지는 사도 바울 팀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사도행전의 내용은 우리들이 전도와 선교를 하면 할수록 참고하고 적용할 내용들이 많다. 전 도 안 하고 선교 안 하면 사도행전 3장 이후부터는 이해가 안 된다. 그런 데 전도, 선교의 문이 열리면 얼마나 정확하게 말씀이 성취되는지 모른다.

2. 사도행전에 숨겨진 성경적인 전도전략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 첫 번째는 다락방이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마가다락방의 진정한 의미

는 그리스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오직 그리스도와 복음전도와 237나라 5천 종족의 선교를 위하여 모인 70인 제자들의 모임이라는 것이다. 다락방전도의 키는 오직예수, 오직복음이다. 또한 다락방 전도란 충성된 자, 갈급한 자, 사망자들에게 오직예수, 오직복음이 될 때까지 복음메시지를 알려주는 것을 의미한다. 예수님과 사도 바울 팀들이 이 일을 하였다. 이것이 ‘하나 님 나라의 일’이다. 램넛트들은 앞으로 영어와 일본어로 복음소식 암송해야 한다.

(2) 두 번째로는 팀사역이다. 팀사역에는 팀사역 전도와 팀사역 포럼이 있다.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전도하기 전에 항상 팀 형성을 해 주 셴다. 마가다락방의 팀, 베드로 팀, 바울 팀이 그것이다. 먼저 팀 형성이 바르게 되었을 때 지속적으로 전도와 선교의 문을 열 수 있고 자연스럽게 열리지게 된다. 그리고 팀사역 포럼이란, 말씀을 통하여 영적인 상담을 하고, 복음을 이해시키고, 잘못된 믿음과 생각을 치유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누기는 사도행전을 통하여 데오빌로에게 팀사역을 했던 것이다. 어떻게 보 면 다락방보다 영적인 상담 팀사역이 먼저일 수 있다. 그렇게 대화를 해보 고 다락방을 하자 하는 게 더 정확할 수 있다. 마가다락방에서도 팀 포럼 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리고 바울은 브리스가 아굴라와 같은 제자들을 만났을 때 팀 포럼을 하였다. 그리고 숨겨진 제자들을 만날 때마다 길에서 나 가정에서나 감옥에서도 팀 포럼을 통하여 그들을 치유했을 뿐 아니라 복음전도에 인생을 올인할 수 있는 사망자로 만들었다.

(3) 미션홀이다. 사도행전에 숨겨진 전도전략 중 가장 중요한 전도방법은 미션홀 전략이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전도자들은 가정 즉, 집에서 말씀운 동, 기도운동, 전도운동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그 가정은 지역을 복음화하 는 교회와 RUTC의 역할을 하였다. 마가의 집은 예루살렘교회가 되었다. 빌립보에 있었던 루디아의 집은 마케도나 지역을 복음화하기 위한 센터의 역할을 하였다. 야손의 집은 데살로니가 복음화의 중심이 되었다.

(4) 다음은 전문사역이다. 사도행전에 보면 당시 세계복음화는 엘리트들 과 전문산업인들을 통하여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의사 누가도 전문인이었다. 데오빌로도 당시 로마의 최고위 정치 지도자였 다. 사도 바울 또한 최고의 전문인이었고, 성경과 학문에 능통한 복음엘리 트였다. 여성 전문산업인이었던 루디아는 전도자들에게 큰 힘이 되었다. 브 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평생 동안 바울 팀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의 역 할을 담당해주었던 전문산업인이었다. 사도 바울은 세계복음화를 위해 당 시 최고의 도시였던 로마로 가고, 최고의 힘과 권력을 가진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을 절대미션과 절대목표로 삼았다. 즉, 전문사역에 도전했다.

(5) 다음으로 사도행전에 숨겨진 전도시스템은 지교회이다. 초대교회 성 도들과 바울 팀들은 가는 현장마다 지교회를 세웠다. 최초로 세운 지교회가 안디옥교회였다. 바울 팀은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인 소아시아 전체와 마케도나 아가야와 로마에까지 가서 지교회를 세웠다. 이것이 바로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 운동이다. 여러분이 안 하고 못 하더라도 마음속 에 우리 교회와 교단과 후대와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그 믿음과 배경이 더 중요하다. 담임목사는 전 세계에 여러분을 대신해서 선교하고 전도한다. 사도 바울은 가는 현장마다 5인 1조 팀 중심으로 무너지지 않는 절대지교회 절대대대를 세웠다. 사도행전에 숨겨진 이 전도의 방법이 하나 님의 전도 25시이다. 이 응답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모든 성도와 램넛트가 되시기 바란다.

오늘은 7매대, 7여정, 7이정표 중에서 7이정표 기도문을 함께 읽도록 하 겠다. 7이정표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안디옥교회, 에베소교회, 빌립보교회, 로마이다.

“① 내가 가는 곳에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② 오늘 어 디 어디를 가는데, 감람산에서 주셨던 언약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 지게 하옵소서. ③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하나님의 역사, 내게 임하게 하옵 소서. ④ 안디옥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시간표, 내게 주옵소서. ⑤ 바울의 첫 번째 선교지, 모든 답을 찾아낸 아시아(에베소)에서 있었던 그 일을 내 게 주옵소서. ⑥ (마케도나 빌립보에서) 바울 팀이 얻어냈던 인생 전환점, 찾아내게 하옵소서. ⑦ 로마 보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 로 기도합니다. 아멘.”

끝으로 사도행전에 숨겨진 성경적인 전도운동시스템을 나의 맘대로 만들 어 전도망대, 선교망대, 치유망대를 237나라와 5천 종족의 현장에 세워가 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많은 인생들인데, 주님께서 아무 조건없이 믿음과 복음을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전도자로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복음을 더 깊이 깨 달아 사도행전의 전도자들이 걸어간 여정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